

BBS 야외 나들이 더위 식히는 '바람'

'백팔가요' '밤의 창가에서' 자연농원·인천등서 공연

여름을 맞아 불교방송이 야외 공개방송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지난 18일 용인 자연농원 야외무대에서 5천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풍류, 듀스, 녹색지대, 서지원등 가요계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총출연하여 백팔가요 공개방송을 개최했다.

함께(12시 인천실내체육관)를 필두로 7월2일 백팔가요 여름 맞이 축하공연(자연농원), 7월 23일 밤의 창가에서 여름방학 특집방송(자연농원), 8월2일 95

불교방송의 공개방송은 청취자와 방청객이 함께하는 마당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행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 불교방송의 야외무대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용인자연농원 백팔가요 공개방송 장면.

"지역사회 실행에 활기" 불자들 호응

뮤직페스티벌 가요의 밤(자연농원), 8월12일 95뮤직 통기타의 밤(자연농원)등.

있다. 불교방송은 공개방송을 전국 각지역에서 줄이어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방송의 신선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불교방송의 공개방송은 사찰이나 단체들을 찾아가는

원 영작사 남궁달 가곡식 행사에서도 공개방송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불교방송의 유병직 차장은 "불교방송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를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며 "가을 즈음에는 전국 투어와 미국공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문인 양성·효율 관리 필요"

방송인 이영숙씨 석사논문서 밝혀



이영숙씨

이 같은 결과에도 이씨는 불교방송이 불교인들을 주 청취층으로해서 제작, 편성하고 있는 데 대한 일반인의 생각은 '일반인들이 주 청취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라진 방송환경에서 불교방송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스님들의 방송진행과 프로그램 제작권한 참여는 전문교육 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또한 이씨는 이 논문을 통해 불자들은 불교방송이 종단의 권익보호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포교 및 오락 프로그램보다는 보도시간의 확대와 교

불교방송 청취자 대다수가 불교방송(BBS)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1일부터 불교방송 가청권인 서울과 경기지역 그리고 부산과 광주등 전국에서 20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 특수방송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식과 태도에 관

청취자 설문결과 '체질개선' 요구 높아

한 실증적 연구: 불교방송을 중심으로'라는 석사논문(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내놓은 이영숙씨(방송인)에 의해 밝혀졌다.

"불교가 문화·정치·사회적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단의 지도자들과 불교인들은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조사했다"는 이씨는 조사결과 불만족스럽다 15.2%, 그저그렇다 56.0%(동 71.8%)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 또한 많았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

계류스의 확충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이씨는 결론적으로 "질 높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급선무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방송 전문인력의 취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제작관행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방송직분간의 통합을 이뤄 부족한 제작인력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심같은 방송인력의 확충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를 종단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도 이씨의 논문이 내놓은 논점 수 없는 과제다.

도필선 기자

불교텔레비전 일부 프로 조정

btn 특강·32스페셜·불자수첩 신설 명상산책등 폐지

내달 1일부터 시행

불교텔레비전은 'btn특강' '32스페셜' '불자수첩'을 신설하고 '여기에 숨은 뜻' '명상산책'을 폐지하는 등의 일부 프로그램 개편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기화다큐멘터리'를 주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여러분의 btn'도 일요일 2회에

서 1회로 축소한다.

이번 신설된 'btn특강'(일 12:30~13:20)은 현대사회속에서 불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청자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주 불교관계자 및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연을 듣는 프로이다.

'32스페셜'(일 13:20~13:30)은 교계의 각종 공언이

나 학술, 행사 등을 녹화하여 중계한다.

'불자수첩'(월~금 13:20~13:30)도 교계행사나 공연을 시청자에게 안내하는 프로이다.

한편 '문화라인'은 지난 17일부터 한국의국어대학 민용태교수가 새롭게 진행을 맡았다. 또 '우리들의 찬불가'는 연극인 김성녀씨가 진행한다.

스타불자 만·나·봄·시·다

친구같은 사이 김청씨 모녀

'친구같은 모녀'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김청씨 모녀.

'뜻뜻하게 잘 지내는 것이 곧 부처님 덕'이라는 김청씨는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바쁜 일정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염주를 차고 다니며 일념으로 정진한다고.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절에는 자주가지 못해요. 하지만 늘 부처



불교영화 '카루나' CATV 함께 출연 화제

님 말씀처럼 살려고 하지요."

원래 할머니 때부터 불교집안이었다며 김청씨 이름도 스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가면 절을 찾았다는 김청씨는 소문난 효녀로도 칭송이 자자하다.

프로진행에서 연기에 이르기 까지

만능탤런트로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사실 엄마의 꿈이었던 영화배우의 길을 본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청씨 모녀는 전통도예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이일목감독의 불교통일영화 '카루나'와 한 유선방송의 리포터로도 모녀가 출연하여 연여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어머니가 선물... 걸지 않으면 흥 안나

관자 목걸이 주인공 가수 김민중

관자 목걸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나의 끝엔 언제나'의 가수 김민중씨.

지난 18일 SBS 'TV인기가요'가 생방송중인 용인자연농원 특설무대에서 어김없이 관자 목걸이를 하고나와 청소년불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다른 연예인들은 십자가를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목걸이가 없으면 흥이 나지 않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김복인 보살이 선물해준 관자 목걸이를 하루도 빼지 않고 3년을 걸고 다녔다는 김민중씨는 얼마전 한 TV 프로에서 반지점프 시범을 보이며 "부처님!"을 외쳐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기도.

외할머니가 스님이었다는 김민중씨는 능인선원(주지 지광스님) 법회에도 어



머니와 함께 참석, 신심을 다지고 있다.

"항상 지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연이 됐던 필연이 됐던 인연에 대한 부분도 자비심으로 대하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

김민중씨는 평생 관자 목걸이를 걸고 다니겠다고 "부처님 지비 아래 온세상이 행복으로 가득차면 한다"고 발원.

FM 광고단가 조정 내년 1월 연기

청취율 조사해 차등 배정

불교방송 흑자운영의 관건이 됐던 한국광고공사의 FM 광고단가 조정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한국광고공사는 지난 18일 AM방송의 20%에 불과한 FM 방송사들의 광고단가 상향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안을 준비해왔으나 일부 방송사들의 영업권 환원 주장과 맞물

려 인상을 자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고공사는 조사기관에 의뢰, 청취율 조사를 통해 각 매체별도 차등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광고공사의 1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불교방송은 월7억2천원의 광고물량을 받고 있어 일반방송사 보다 20배까지 적은 광고물량을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초의 전쟁상처 생생히 소개

불교방송 6·25특집 다큐 '아울 수 없는...' 방송

불교방송은 한국전쟁 45주년을 맞아 6·25특집 다큐멘터리 '아울 수 없는 상처들'이라는 프로그램을 25일 11시55분에서 12시55분까지 방송한다.

중원록이 아닌 6·25의 기억을 민초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아울 수 없는 상처들'은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전쟁이 갖는 물 개인성을 비판한다.

담당 PD 조은정씨는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일을 통해서 민족의 아픔을 얘기하겠다"고.

각지역국의 현황분석 보고와 재단법인 설립건, 재산출현방안에 관한 건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1차회의 열어

총복BBS 개국 준비위

총복불교방송개국준비위원회(위원장 필성스님)는 준비 1차회의를 오는 30일 오후 5시 개최, 개국추진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날회의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부산과 광주불교방송을 실시한 채준관 집행위원장의

불교TV 주식 구입 결의

부산·경남 후원회 운영위

불교TV 부산 경남 후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7시 중구 코모도호텔 2층 '희락정'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불교TV의 현황과 발전전략, 불교TV 주식의 의의설명과 함께 운영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식구입 결의가 있었다.

불교영화 '카루나' 몽골로

불교통일영화 '카루나'가 국내 처음으로 몽골 로케이션을 하고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 몽골 로케이션은 주인공 분담이 비구니가 되어 '오백나한'을 설명할 때 나오는 화면장면으로 실제로 5백여명의 몽골 현역군인이 나한으로 출연.

방송 하이лай트

btn ch32

기림사의 우담바라 설화

한국의 명찰(26일 11:10~12:00) 경북 함월산 기림사의 기림사. 기림사는 부처님 생전 때에 인도에 세워졌던 인도의 기림정사를 뜻한다. 이 사찰에는 천년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라는 약초가 있었다고 하는데...

변신의 배우 김보연 인생담

김보연의 스타쇼(28일 11:10~12:00) 늘 변신하는 배우 김보연.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와 함께 연기란, 항상 힘이었던 어머니의 불심을 얘기한다.

코카서스산맥 기림의 비단

실크로드(29일 12:30~13:20) 중국과 로마사이에 뻗어있는 실크로드는 페르시아를 통과한다. 코카서스 산맥 기림에 있는 모스크바 아발카에서 비단을 확인해 본다.

태종 역경사업 추진 유언

삼강법사 현장(1일 12:30~13:20) 현장삼강을 아끼는 태종은 삼강법사와 의형제를 맺은후 환속하여 국사를 같이할 것을 권유한다. 태종은 역경사업을 계속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결국 승하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3.9MHz(부산) FM 83.7MHz(광주)

미륵신앙의 잘못된 관념

비로보는 불교역사(26.27일 14:10~15:00) 익산 미륵사지를 찾아 미륵신앙의 잘못된 관념들을 되짚어 본다.

네팔불교의 현황과 문화재

세계의 불교는 지금(28일 10:05~10:55) '네팔 이야기' 편에서는 노승대(삼신사수련원)씨가 출연하여 네팔 불교의 현황과 문화재를 소개한다.

소비자 불편사항 상담

BBS 생활상담실(29일 11:20~12:00) 아토프서비스와 불량제품 문제등 소비자의 각종 불편사항을 소비자자문명 도영숙실장의 상담으로 해결해 보는 시간.

주말 여행정보 전달

생방송! BBS 정보시대 1,2부(30일 18:00~18:40, 19:20~20:00)여행전문가 문정진씨가출연하여 주말여행정보를 알려준다.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 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햇불을 밝히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동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시도·미키·후쿠다·스즈키·다카가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적인 체계원. 이제 그가 바뀐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